

중국 농촌사회의 기독교 공동체 연구* - “예수가정”을 중심으로

설충수 (송실대학교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중국 농촌에서 예수가정 태동의 배경
- III. 예수가정의 성립과 발전
- IV. 농촌생활공동체로서 예수가정의 의의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1.07>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8027893)

• ABSTRACT •

A Study of Community in Chinese Rural Area – Focused on the
Community of “Jesus Family”

Prof., Seol, Choong Soo(Soongsil University)

The Christian community has formed a community like a utopia that could adhere to the essence of religion to declare a message of salvation in the crisis of the times and the state of Anomie. It has created life and culture with a shared sense of Christian spirit in its common living space. The “Jesus Family” is an excellent example of this kind of Christian community. In the face of social crises such as war and famine, they created a community by Chinese people who are fit into the rural society. Using the patriarchal authority of rural communities, the spiritual “household system” was established, and the theology of the Pentecost system suitable for the religious consciousness of farmers was developed into its central idea. Private property was eliminated, and a community was created that dreamed of becoming a “Great Harmony” for self-sufficiency through the communist and shared systems. The way of Jesus Family took root in the rural society and culture influenced N.C.C.C’s pastoral mission project. I think it brings meaning to the church’s appearance that is creating a local community today through Jesus’ family.

Key words: “Jesus Family”, Christian community, Rural Society, household system, Chinese Pentecostal Denomination, Society of Great Harmony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공동체 연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산업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적 발상에서 공동체를 주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체(community)는 지리적 근접성(지역성)과 사회적 단일성(공동의식) 및 문화적 동일성(공동규범)을 가지는 공동사회적 집단을 의미한다.¹⁾이런 사전적 의미를 통해 보면, 공동체는 지리적 근접성이나 사회적 단일성을 지닌 사람들이 공동규범으로 여길 수 있는 동일한 문화나 정신을 추구해 나가는 공동의 사회집단이라 할 수 있다. 공동의 생활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모습을 지닌 것으로 과거 전통사회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연상시킨다. 물론 근대에 와서 이 공동체에 대해 학술적 개념을 정립시킨 것은 독일의 사회학자 튀니에스(Ferdinand Töennis)로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공동사회’ 또는 ‘공동체’로 논의를 제기했다. 이 게마인샤프트는 19세기에 점차 국가와 사회의 영역과 힘이 커지면서 국가와 사회의 특징을 합리적 의지(Küwille)와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집단으로 파악하는 게젤샤프트(Gesellschaft), 즉 이익사회와 대조적으로 자생적 의지(Wesenwille)에 따라 신뢰에 찬 친밀한 공동생활을 누리는 집단을 말한다.²⁾ 사실 이 게마인샤프트, 공동체는 합리적 의지와 계약관계가 중심인 도시보다 자생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 신뢰관계가 중심인 농촌에서 보다 실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신뢰관계 중심이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 공동체에 대해 어떤 시각을 지녀야 할까? 기존의 사회 체제가 무너지는 극심한 아노미(anomie) 상태 즉 소외로부터 구

1)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성서연구사, 1992), 144.

2) 김형미, “공동체운동이란 무엇인가-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80(새얼문화재단, 2013, 09), 16.

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보면, 기독교의 복음은 고로(苦勞)와 고통의 장인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구원을 갈망하는 심정에서 종교의 본질인 유토피아,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만하임(Karl Mannheim)의 지적처럼, 피압제자의 계층과 그들의 구원을 갈구하는 심정으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서 유토피아가 산출되는 것이다.³⁾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의 태동은 유토피아, 공동체에서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예수와 제자들의 삶에서도 초기 교회의 모습에서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사도행전2장) 공동체의 삶은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기독교 본질이 갖추어야 할 모습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독교는 구원을 선포하는 종교로, 이런 공동의 생활공간과 상호작용 그리고 유대감이 넘치는 자발적 신뢰관계가 중심인 공동체를 끊임없이 지향해야 한다. 물론 기독교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 속에서 기존사회와의 충돌적인 거부를 피하면서 이 세상을 수락했다. 그리고 기독교가 처해 있는 시간과 장소에 존재하는 기초적인 사회제도에 대해 타협하고 합리화⁴⁾함으로써 그 공동체적 성격을 퇴색시킨 것도 사실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기독교가 추구할 방향이 공동체 지향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측면에선 기존사회 질서에 적응해 타협과 합리화를 시도하는 것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처한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세상과의 갈등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고찰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고찰하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문화적 토양에 맞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3) 토마스 F. 오테아, 자네트 오테아 아비아드, 박원기 역, 『종교사회학』(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102.

4) 토마스 F. 오테아, 자네트 오테아 아비아드, 위의 책, 81.

하는지 궁구하면서 “예수가정”연구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가정은 우리의 기본토양이라 할 수 있는 농촌문화와 전통문화에 기초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던 기독교 공동체이다. 우즈밍(吳梓明)은 그 특징에 대해, 첫째, 강제제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가정 안의 모든 사무를 관장했다. 이것은 동아시아 문화의 가부장적 특성을 반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초기부터 사유재산을 없애고 공유재산과 평균주의 원칙을 실시했다. 사유재산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기에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공유재산과 평등평균의 이상을 실천하려고 했다. 이는 예수가정이 하층민 중심으로 중국토양 위에 성서적 가르침을 뿌리내리고자 한 기독교 이상사회의 지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예수가정은 그 사용하는 찬송가 등 대부분이 당시 산동성 민간사회에 유행하는 민간가요 등의 곡조를 따와 기독교 신앙과 결합시켰다. 이점은 농촌사회에 적응하려는 문화화의 노력으로 서구인에 의해 이식된 기독교가 아니라 중국인 스스로에 의한 기독교 공동체라는 특성을 지닌다⁵⁾고 했다.

20세기 초 당시 일반적인 기독교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가정은 농촌사회에서 공동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공산, 공유제도를 통해 자급자족의 주도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 나갔다. 동시에 전통문화의 요소를 기독교식으로 변용해 민간사회에 뿌리내리는 의의를 드러냈다. 마치 성서적 가르침으로 비춰지는 기독교 이상사회가 예수가정에서 실현된 것이다. 이에 필자는 예수가정을 통해 중국 농촌사회에서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동아시아 기독교에 주는 의의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와 농촌사회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리고 예수가정 공동체가 지닌 특성을 중심으로 농촌사회에 기독교의 토착화과정을

5) 陶飞亚, 『中国的基督教乌托邦研究: 以民国时期耶稣家庭为例』(人民出版社, 2012), 6.

이해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의 인간성 상실, 개인화, 사회적 유대의 약화 상황에서 교회의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연구는 무려 90여 년 전 같은 동아시아 문화 위에 세워진 예수가정 공동체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를 전달해 주리라 내다본다.⁶⁾

II. 중국 농촌에서 예수가정 태동의 배경

예수가정을 통한 농촌사회의 기독교 공동체 건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20세기 초 중국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농민 인구는 당시 전 국민의 사분의 삼을 차지한다. 하지만 농촌은 경제적인 빈곤지역으로 대표되며 이런 경제적 빈곤은 열악한 의료위생조건을 만들어 농민들로 하여금 더욱 초자연적인 힘이나 미신 등을 추구하게 했다. 경제적 빈곤은 농민 지식수준의 현격한 차와 더불어 농촌사회의 비이성화를 만들어내는 단초가 되었다. 이에 과학보다는 종교에 더욱 의존해 농촌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농촌사회에서 종교신앙이 실제적으로 초자연적 방식으로 사회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경제적 빈곤 그리고 비이성화의 특성을 가진 종교적 영향력이 강한 농촌사회에 기독교의 전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일반적으로 농촌의 기독교 전파는 태평천국과 내지회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19세기 후반, 근대화 과정에 영향력을 끼친 선교는 주로 교육과 의료 등이었다.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지식인과 상층사회에 적응

6) 본 연구는 필자의 “중국 ‘예수가정’ 연구-그 역사와 신앙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제50집(한국교회사학회, 2018)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농촌사회에서 형성된 기독교 공동체에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농촌사회와 문화에 어떻게 부합해가며 기독교 공동체로서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줬다. 상대적으로 농촌, 하층민에 대한 선교는 부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20세기 초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의 66%가 인구 5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었다는 통계기에 비춰봐도 농촌은 선교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첫째, 도시는 선교전략에서 일찌감치 선교사에게 개방되었다. 교통과 인구밀집 그리고 자원이 풍부해 농촌보다 비교적 쉽게 선교가 이뤄지면서 농촌을 소홀하게 여겼다. 둘째는 선교방법의 한계성에서 찾고 있는데, 즉 기존의 선교방법은 주로 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적합한 것으로 넓은 지역, 산재된 인구 등을 지닌 농촌지역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방식이었다.⁸⁾

이와 더불어 19, 20세기 중국에 전파된 기독교의 모습에서 사회복음을 강조하는 이성화된 기독교를 표방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은 이질적인 농촌 사회와 문화에 뿌리를 내리기 곤란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의료와 교육 그리고 문서사역을 통한 합리화된 방식을 강조하는 선교는 도시에 집중해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구원보다는 전체 중국사회의 변화를 통한 기독교화를 추구했다.⁹⁾ 물론 이런 선교방식이나 신학적 특성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농촌에 대한 소홀로 나타났다. 1920년대 이전 서양 선교회 중심의 선교대상은 주로 도시, 지식인 중심으로 이뤄져 있었다. 또한 이들 선교회를 거의 스승처럼 따르며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교회 입장에서도 농촌과 농민을 미처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1922년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기독교전국대회(이하 전국대회)는 기독교가 농촌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보고에 의하면, “대다수의 국민과 진정한 중국은 도시에

7) 中华续行委员会调查特委会编, 『中华归主』(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5), 88.

8) 刘家峰, 『中国基督教乡村建设运动研究(1907-1950)』(天津人民出版社, 2008), 31-33.

9) 顾卫民, 『基督教与近代中国社会』(上海人民出版社, 1998), 352.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있기 때문에 협진회는 적극적으로 농촌사업을 중시하고 있다¹⁰⁾고 할 정도로 농촌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서양 선교회로부터 벗어난 중국교회 건립의 시작점에서 주도적으로 농촌을 주목하고자 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로 개량사업을 통한 농촌재건으로 사회복음적 특성을 계승한 당시 중국기독교가 어떻게 농촌사회에 접근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즉 기독교 선교가 도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농촌사회로 확대시키는 모습을 나타낸다.

당시 전국대회는 비기독교운동을 통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고조하는 상황과 신문화운동의 영향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팽배한 상황이었다. 중국기독교가 시대와 사회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중국의 기독교(Chinese Church)”라는 가치를 내걸고 토착화 교회건설을 천명하는 목소리였다. 서양 선교사들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중국인 스스로 다스리고(自治), 스스로 양육하며(自養), 스스로 전도하는(自傳) 삼자(三自)교회 건립, 즉 중국교회 건립을 주장했다. 이런 민족적 교회 건립에 대한 응답과 더불어 전 국민의 사분의 삼에 해당하는 농민과 중국 몇천 년의 문화정신이 농촌에 기인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중국기독교가 중국적 색채를 나타내어야 하는 토착화 작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중국기독교의 농촌선교 동기로 충분했다.¹¹⁾

물론 전국대회는 전문적으로 농촌문제와 농촌교회위원회의 성립 그리고 농촌사업 연구와 조사를 착수했지만 그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다. 그 원인은 교파 간의 갈등이 연합사업을 추진하는 협진회의 추동력을 소강시켰다.¹²⁾ 이런 원인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대적 변화 물결 속에서 더 이상 농촌은 간과할 대상이 아님을 알았으며, 여기에 1928년 예루살렘

10) 段琦, 『奋进的历程：中国基督教的本色化』(商务印书馆, 2004), 272.

11) 中华全国基督教协进会编, 『基督教全国大会报告书』(协和书局, 1923), 147.

12) 刘家峰, 위의 책(2008), 74-75.

대회의 영향으로 중국기독교는 농촌 재건을 중시하는 분위기였다. 이 여파로 기독교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대학과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가자, 민간으로 가자” 등의 구호를 펼치며 농촌 개량사업을 기초로 하는 농촌건설 운동을 전개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농촌실습지역(乡村实验区)’인데, 연경(燕京)대학, 제노(齐鲁)대학, 금릉(金陵)대학, 금릉신학원 등 그리고 기독교지식인과 남녀기독교청년회를 중심으로 농촌 재건을 위한 실험에 참여하는 농촌지역 공동체(Rural Community)를 만들어갔다.

이 ‘농촌실습지역’ 활동은 주로 1930년대에 시작되어 주로 농민교육과 농촌 개량 그리고 지역보건사업 등 농촌의 기독교화를 위한 공동체건설에 많은 기독교 대학지식인 등이 참여하는 구조였다. 물론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그 원인은 1937년 중일전쟁(항전) 발발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에서 찾고 있지만 더 근본적 원인은 농민이 주체가 되도록 조치하는 토지제도의 개혁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평가한다.¹³⁾ 이 ‘농촌실습지역’을 통해 당시 주류에 해당하는 중국기독교가 어떻게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그 출로를 찾아 나가려고 했는지 고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예수가정을 통한 농촌사회의 기독교 이해는 농촌교회 연구의 또 다른 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기적으로도 또한 다른 신학적 특성을 지닌 예수가정의 농촌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농촌사회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시야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13) 段琦, 위의 책(2004), 445-464. 당시 농촌개량사업은 농민이 주체가 되는 토지개혁에 두지 않고 주로 농촌개량사업에 참여한 지식인을 통한 농민의 의식개선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해방을 맞아 대대적인 토지개혁이 실시되며 신중국 성립의 기반을 만들어간다. 예수가정은 이런 상황에서 사유재산의 포기와 포기 등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한편 소작농들의 토지를 매입해 공동체의 경제기반으로 삼는다. 해방 후 토지개혁에 대해 예수가정은 비록 소유한 토지가 줄어들더라도 정부의 토지개혁에 찬성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陶飞亚, 위의 책(2012), 244를 참조)

III. 예수가정의 성립과 발전

일반적으로 예수가정은 중국의 자생적 집단에 의해 세워진 자립교회의 한 형태이다. 자립교회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대개 20세기 초 의화단 사건에서 찾고 있다. 19세기 후반 서구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가장 고조하고 있던 시기에 의화단 사건이 발생했다. 기독교는 중국인의 격렬한 공격 대상이었고 목표였다. 이런 반감은 기독교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이에 기존의 선교방식을 내려놓고 의료와 교육 등 중국사회의 기독교화를 위한 선교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을 각성시켰다. 이런 민족의식의 각성은 서양 선교회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선교회가 이제 중국인들에 의해 스스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했다.¹⁴⁾

이와 같은 민족의식의 각성은 분명 자립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산둥(山東)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자립교회의 배경을 연구한 보고에 의하면, 첫째, 민족주의라는 큰 흐름의 자극이 있었으며, 둘째, 중국인 전도역량이 성장했다. 마지막으로 당시 중국자본주의의 발전이 산둥성 자립교회가 등장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보았다.¹⁵⁾ 이는 특히 의화단의 발생지이고 해안에 위치해 비교적 상업이 발달한 산둥성의 지역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면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산둥중화기독교자립회’가 있다. 그 외 상하이의 “중국예수교자립회”와 화북지방의 “중화기독교회” 등이 세워졌다. 이들은 이후 등장하는 협회처럼 전국적이거나 조직적인 규모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립교회가 민족주의의 각성에서 시작되었어도 대부분 서양 선

14) 段琦, 위의 책(2004), 109.

15) 陶飞亚, 刘天路, 『基督教会与近代山东社会』(山东大学出版社, 1995), 87-90.

교회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선교사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다. 이런 독자적인 자립교회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중국신도의 신학수준이 낮아 선교회나 선교사에게 의존적이었고 또한 선교사와의 관계를 일종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인식해 이들 선교사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립교회는 선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인사상 중국인에 의해 관리하는 일 외에 신학사상이나 제도, 의식 방면에서 여전히 선교회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기독교의 토착화 작업에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었다.¹⁶⁾ 선교회의 영향하에 있는 자립교회이며 특히 산동 자립교회의 위치가 주로 공업이 발달한 해안도시나 내륙의 중심도시였기 때문에 그 신도 분포도 대부분 공상업 종사자 또는 경제력 있는 신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가난한 신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사회에서 자립교회가 만들어지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자립교회 모습에서 우리는 농촌사회에서 형성된 자립교회인 예수가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수가정은 1921년에 산동성 타이안(泰安) 마좡(馬庄)에서 시작해 1952년에 해체된 중국 농촌사회의 자립교회 기독교 공동체이다. 설립자 징디엔잉(敬奠瀛, 1890-1957, 이하 징으로 표기)은 농민 출신 지식인으로 감리교 학교를 다니다가 오순절 성령운동의 영향을 받고 농촌마을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시작했다. 설립자 개인에 대한 이해는 선행연구를¹⁷⁾ 통

16) 陶飞亚, 刘天路, 위의 책, 95-96. “은혜에 보답하는 전도회” 등의 조직을 통해 자립교회를 만들어가면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학 부분에서는 선교회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자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17) 예수가정에 대한 연구는 보인 리즈(Rees, Vaughan)의 “Jesus family in communist China”로 내지선교회 소속의 연구자답게 예수가정을 성공한 공동체로 초대교회의 이상이 실천된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외부자적 연구에 한국기독교 내에서 공동체 운동을 지향하는 대천덕 신부나 김현진 목사 등이 영향을 받고 동아시아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예수가정을 접근하고 있다.(김현진, “중국의 예수가정(1),” “예수님을 가장(家長)으로 모신 공동체(2),” 「목회와 신학」(두란노, 1999,

해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예수가정이 자립교회이며 농촌교회로서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예수가정의 발원지 마황은 민국시기에 온전한 농촌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낙후한 지역이었다. 지역적으로 농촌이기에 예수가정의 구성원 또한 많은 부분 농민이었다. 한 예로 예수가정에 들어온 사람들은 1938년부터 1945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남자가장이 30% 그리고 여자 가장이 56%에 이르렀을 정도로 농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촌교회임을 알 수 있다.¹⁸⁾ 지역과 구성원 분포뿐 아니라 실제 예수가정은 농촌개발활동에도 참여했다. 초기 예수가정의 모태인 “성도신용저축사(聖徒信用儲蓄社, 이하 성도사로 지칭)”¹⁹⁾라는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해 농민을 돕거나 농촌사회에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했다. 당시 자연 재해뿐 아니라 군벌의 횡포에서 날이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해 지역사회에서 작은 교회를 실천하는 모습

11-12) 그리고 예수가정의 발생과 발전 그리고 그 내면의 목회적 모습과 영성적 모습을 연구한 자료로 설충수, “중국 ‘예수가정’ 연구-그 역사와 신앙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제50집(2018) 가 있다.

18) 陶飞亚, 위의 책(2012), 140. 물론 예수가정에 농민 비중이 크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농민만 있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통계에 의하면, 상당수의 지식인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소지주가 참여한 농촌교회라 할 수 있다. 陶飞亚, 刘天路, 위의 책, 102에서도 마황 예수가정의 신도분포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7가구 116명,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13가구 38명, 지식인 등이 11가구 34명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9) 성도사는 예수가정의 모태가 되는 단체로, 징을 포함해 동역자로 동참하는 사람들은 당시 자연적 재해뿐만 아니라 군벌의 횡포에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을 직면하며 사회변화를 희망했다. 이런 몇몇 혈연관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사상을 통해 새로운 숨쉬는 곳을 찾게 되었다. 특히 이런 면에서 성도사는 자본가와 노동자, 농민의 대립관계를 의식하고 자본가를 없애야 한다는 사회주의 사상을 공산당보다 먼저 이야기할 정도의 급진적인 사상을 지녔다. 1921년 정월 초에 7일간의 대집회를 가지고 난 후 정식으로 출범하여 장사를 시작했다. 주로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팔아 자립과 자양을 세워나가는 작은 상점이며 작은 교회로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마황지역이 가난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설충수, 위의 논문, 121. 陶飞亚, 위의 책(2012), 75-76.)

이었고 이를 통해 당시 중국사회의 변화를 희망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개량사업을 통해 농촌건설운동을 전개한 협진회의 목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예수가정의 농촌개량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지만,²⁰⁾ 농촌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했는지를 알려 준다고 본다.

자립교회로서 예수가정에 대한 이해는 먼저 서양 교회와의 관계를 살펴 봐야 한다. 설립자 징이 늦은 나이에 입학한 쉐영(莘莢)중학은 미북감리회에 의해 세워진 학교였고 그의 신앙귀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딜렌벡(Nora Dillenbeck)은 미북감리회 파송의 독신 여선교사였다.²¹⁾ 물론 딜렌벡은 이후 미북감리회와 관계를 단절하고 예수가정에 입회(1936년) 하게 된다.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성경 외의 다른 과정을 만들어 가르치려는 미북감리회의 요구를 거절한 그녀는 예수가정에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한 신앙을 구현하려고 했다. 이런 관계에 기초해 보면, 징은 초기 미북감리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당시 타이안에서 활동하던 페리 핸슨(Perry Hanson, 중국명 韩丕瑞)의 추천으로 1918년 징이 아직 중학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난(濟南)연합병원²²⁾에 전도인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물론 그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징은 교회의 제도화된 틀 안에서 형성된 지배와 관리를 받아가며 전도를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에서 경험한 협력관계 그리고 예수가정에 참여하는 마찰의

20) 张春慧, “泰安耶稣家庭述论,”(山东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8), 23-25.

21) 陶飞亚, 위의 책(2012), 79-87. 타오(陶)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징디엔잉이 딜렌벡과의 개인적인 교류도 있었지만 징디엔잉 본인의 정서상 극단적 신비체험을 가져올 도교나 민간종교 등에 심취하고 있었던 배경이 이후 성령체험을 강조하는 오순절계통의 신학으로 기우는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이 때문에 그는 지난에서 전도인으로 지낼 때에 “성현도(聖賢道)”라는 민간종교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의 다양한 종교경험 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2) 이 병원은 제노(齊魯)대학 부속병원의 전신으로 원래 영국 침례회와 미국 장로교가 연합으로 세운 병원이다.

동료들과 교류에서 성령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그가 미북감리회에서 나와 하나님의 성회(The Assembly of God, 神召會) 즉 오순절계통의 신학으로 돌아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주류 교파적 성격을 벗어나 성령을 강조하는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런 성령체험의 영향은 이후 징이 1925년 하나님의 성회가 운영하는 태산 고아원의 회계와 감독을 맡으면서도 나타난다. 이곳을 담당하는 독립선교사인 앵글린(L. M. Anglin) 부부와 교류를 통해 “질병과 가난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없애고 집이 없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나눠주어 십자가 아래에서 안식과 용서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주기 위해서”²³⁾ 헌신하는 자선기관, 태산 고아원의 생동성을 배우게 되었다. 이곳에서 기독교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게 되었다. 실제 이 기관은 자급자족을 실천했으며 종교와 세속생활의 결합을 만들어 갔다. 교회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농장과 공장 그리고 학교가 있어 종교적 훈련과 세속생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다.²⁴⁾ 이는 분명 예수가정의 중요한 모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령체험 그리고 이를 강조하는 선교사들의 영향은 예수가정의 중요한 신학적 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점은 20세기 초 자립교회가 직면한 현실, 선교사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만, 예수가정은 주체적 관점에서 성령체험 등의 사상을 수용하고자 했다. 징 개인은 극단적 신비체험을 가져올 도교나 민간종교 등에 심취했다. 이런 그의 배경은 쉽게 성령체험에 기울게 했으며, 성령체험이 강조하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성령이 신도 개인의 마음

23) 鄭新道, “泰山孤貧院,” 泰安市文史資料委員會編, 『泰安文史資料』第2輯(1987), 89.

24) 설충수, 위의 논문, 121.

에 들어와 이상(異象)을 보는 것을 구원의 징표'로 삼는 것은 당시 산동성 농촌의 무속신앙이 연관되어 농촌문화의 자발적인 수용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²⁵⁾

성령체험의 강조가 당시 농촌사회와 문화에 부합하는 모습은 예수가정 이 기존의 주류교파의 영향에서 벗어나 농촌에 맞는 기독교의 형태를 찾아나가는 방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수가정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가정은 이런 사상적 배경 속에서 1921년 예수가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성도사 그리고 태산 고아원의 공동체 모습에 영향을 받아 1926년에 성도사에서 '잠상(蠶桑, 뽕 누에) 학도방'²⁶⁾으로 그리고 1927년에 예수가정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예수가정이란 이름은 예수 구주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가정의 의미로 여기서 가(家)는 갖머리(宀) 아래에 돼지(豕)가 아니라 사람(亻)과 주님(主)이 함께 거처하는 가정을 의미하는 글자로 표시했다.²⁷⁾

예수가정은 농촌사회에서 종교와 경제활동을 함께 결합시켜 열대여섯 명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소유하고 함께 나누는 생활공동체로 시작했다. 1952년 공동체가 해체되기 전까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1927년부터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공동체의 기초가 다져지는 시기, 두 번째 단계는 중일전쟁이 일어나는 1937년부터 끝나는

25) 陶飞亚, 위의 책(2012), 83.

26) 잠상 학도방은 징의 생질(甥姪)인 시아훤전(夏传真)이 제안한 것으로 이들 부부는 신앙을 갖기 시작한 후 매우 열성적이었는데, 그의 부인이 미북감리회가 운영하는 여학도방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를 마치고 잠상 학도방을 세우기로 계획했다. 잠상은 뽕잎을 길러 누에에 먹여 실을 뽑는 것으로 돈을 모아 과부 한 사람을 양육하고 이것으로 다른 과부 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었다. 태산 고아원의 모습처럼 함께 일하는 생활공동체를 지향했다. 1926년에 징은 이들 부부의 헌신적인 열정에 감동되어 당시 상업이 중심인 성도사를 접고 누에 농사를 짓는 잠상 학도방을 시작한다. 이는 예수가정이 농촌사회의 경제에 맞는 생활방식을 찾아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설충수, 위의 논문, 122.)

27) 陶飞亚, 『边缘的历史-基督教与近代中国』(上海古籍出版社, 2005), 195.

시기인 1945년까지와 1945년부터 1949년 신중국이 세워지는 시기로 주로 항일전쟁과 내전 등의 영향이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시기, 끝으로 1952년까지 해체되는 시기이다. 무려 30여 년의 세월 동안 산동성의 자연재해와 전쟁 그리고 내전 등 급격한 사회 혼란과 변동을 겪었다. 예수가정은 농촌사회의 공동체로서 농촌재건에 앞장선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신앙과 생활의 결합을 통해 공동 생산, 분배 그리고 책임 위탁 교육 등 농촌사회 선진화를 추진한 생활공동체로서, 농촌사회의 문화에 부합하는 면을 통해 농촌의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다.

IV. 농촌생활공동체로서 예수가정의 의의

농촌사회에서 성립, 발전한 예수가정이 어떻게 농촌사회와 문화에 부합한 기독교 생활공동체로서 나아가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이 장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먼저 농촌의 기초단위인 가정과 조직에 부합한 예수가정으로 그 가장제를 살펴보겠다. 가장제는 전통적 권위체제에 가장 부합한 방식으로, 예수가정이 중점으로 두고 있는 가정에 기초해 가장제를 운영했다.²⁸⁾ 가장제가 출현하게 된 원인은 점차 확대되는 공동체의

28) 설충수, 위의 논문, 128-9. 陶飞亚, 위의 책(2012) 등을 통해서 보면, 가정을 기본단위로 하는 예수가정은 예수와 함께 하는 가정을 말하는데, 사람(人)과 주님(主)이 함께 거처하는 가정을 중점으로 두는 공동체이다. 여기서 예수가정이 말하는 가정은 예수 안에서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가정을 의미하는데, 전통적 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짱의 예수가정을 “본가 또는 본가정(老家)”으로 불렀으며, 그 규모를 점차 확대시키면서 지방에 세워진 예수가정을 “작은 가정(小家)”으로 불렀다. 중일전쟁(항전) 전까지 “작은가정”은 지방에 11곳이 세워졌으며, 그중에 9곳이 50년 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전쟁의 고난은 예수가정을 성장시켰다.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예수가정의 폭발적 발전을 가져왔다. 1937년 전쟁 발발 전 마짱 본가의 인원이 17명이었는데 전쟁이 끝날 때쯤 300여 명까지 증가했다. “작은가정”도 1938년부터 1945년까지 매년 8곳 가까이 세워져 대략 63곳이 있을 정도였다. 그중에 38곳은 산동성 내에 있었고 몇몇 곳은 장강 이남 또는 동북지역에도 세워졌다. 예수가정은

규모와 늘어나는 다양한 입교자들이 공동체 내에서 일으키는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제는 예수가정의 영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반 교회의 민주적 관리체계와는 상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기 중국의 농촌문제를 연구해왔던 스미스(A. H. Smith) 선교사는 중국사회의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와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주목했는데, 이와 같이 가정 안의 연대와 책임이 사회와 국가로 확대되어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서양은 자식이 결혼한 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분리돼 새로운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자기 궤도에 맞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동양은 결코 개인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단위로서 가정의 유지를 유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아들은 여전히 이전과 같이 부모 집에서 거하고 아버지의 권위하에 놓이게 된다.”²⁹⁾ 이와 같이 몇 세대가 내적 혈연관계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 감정적 연결고리를 뛰어넘는 권력통제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중국의 전통적 가정이다.

사실 이런 전통적 가정에 대한 언급과 다르게, 예수가정은 혈연적 유대관계의 틀을 벗어나고자 했다. 늘어나는 구성원을 감당할 길이 없는 현실적 이유이기도 하지만, 혈연관계에서 벗어나 영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가정의 개념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했다. 1941년의 찬송가 “가정충복(家庭忠仆)”에서 “가정은 사랑의 조직으로 결코 법제화된 산물이 아니며 모두가 아버지와 아들, 형제와 자매이며, 고달픈 사람의 휴식처이며 마음이 상한 자의 인식처이다”³⁰⁾라고 했다. 예수가정의 가정은 그 어떤 것도 인

초기에는 혈연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점차 전국적인 조직으로 그리고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가정에 들어오게 되면서 혈연관계를 넘어선 영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정을 세워나가려 했다.

29) A. H. Smith, *The uplift of China* (Cincinnati: Jennings & Graham New York: Eaton & Mains, 1907), 56.

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며, 성령 가운데 형제와 자매로서 사회적 틀을 벗어나 천국이 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곳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원히 식지 않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예수가정은 농촌사회가 중시하는 혈연관계를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형성과정을 보면, 당시 기근과 흉년 그리고 전쟁의 피해로 더 이상 사회적 희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혈연관계의 중시보다 위로와 안식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대안으로 다가온 예수가정의 이상에 대해 호응하려고 했다. 이는 초기 예수가정에 입회한 사람 중에 상당수 지주들의 참여가 있었는데, 이들은 생활고에 찌들어 공동체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설립자 징의 이상적인 사상에 감동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다.³¹⁾ 예수가정은 예수와 함께 하는 가정으로 사람(人)과 주님(主)이 함께 거처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서³²⁾ 지상에 세워진 천국을 지향했다. 이는 예수가정이 농촌사회의 틀을 기독교식으로 어떻게 변용해 나가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한다고 본다.

이런 가정 개념에 기초해 제기된 가장의 역할과 권위에 비춰보면, 이는 중국의 전통적 장로통치의 이념과 그 유사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예수가정의 가장은 혈통 대신에 영적 계통을 더 중시하지만 전통적 가장이 지닌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 그 예로 효와 복종을 예수가정 구성원의 당연한 윤리의무로 여겼기 때문이다. “예수가정은 한 가정으로 마땅히 효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가정의 존재는 전적으로 효도에 의지해 유지되기 때문이다.”³³⁾ 이 가정제는 조직관리의 성격도 있지만 영적

30) 陶飞亚, 위의 책(2012), 159에서 재인용.

31) 陶飞亚, 위의 책(2012), 115.

32) 陶飞亚, 위의 책(2005), 195.

33) 张春慧, 위의 논문, 63.

권위를 세워나가는 데 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동체 자체가 몹시 가난해 가장이란 책임을 맡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발하고자 한 모습은 이를 잘 나타낸다고 본다.³⁴⁾ 이 때문에 가장은 엄격한 권위를 지닌 존재로 보여지지만, 한편 몸으로 솔선수범해 신도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존재였다. 즉 가장과 형제, 자매 사이에서는 의식주라는 면에서만 평등하며, 곤궁하고 힘든 상황에서는 도리어 가장이 지도자적 역할을 발휘해 먼저 더 고난을 겪는 존재로 묘사해 나갔다. 이런 가장의 품덕과 종교적 열정이 당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가져다주었다.³⁵⁾

이런 가장이 보여주는 영적 권위는 마치 베버의 지적처럼 권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카리스마 체험에서 기원한다. 즉 초월적 관계로부터 유도되어 사회구조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가정이나 공동체 같은 자연집단의 신성화로부터 구분되는 특별한 종교조직체인 새로 세워진 종교들에서 이런 독특한 경험이 나오게 된다.³⁶⁾ 영적 권위로서 가장은 신성한 모습, 사회적 규범과 권위의 구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더욱이 이런 영적 권위는 초자연적 인간 즉 육체와 영혼이 천부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의해 형성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과 흉년의 세월에서 이상적 천국을 만들어가고자 한 예수가정의 영적 권위, 가장의

34) 『敬奠瀛的自传与耶稣家庭的情况』(泰安市泰山区档案馆, 1-16-9), 148-9.

35) 陶飞亚, 刘天路, 위의 책(1995), 104. 여기서 당시 한 구성원의 가장에 대한 기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당시 본래는 전쟁과 흉년의 세월이었기 때문에 예수가정의 성원 또한 고난의 삶이었으며 생활이 매우 곤궁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사랑했다. 위징청(于静澄) 가장은 매우 동정적이었고 모든 일을 민주적으로 해결했다. 그들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식은 부모를 잘 섬겨 남녀노소가 모두 평안하고 서로 돌보고 섬겼다. 가장이건 구성원이건 모두 기꺼이 고난을 함께했다. 이 때문에 매우 힘든 삶이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매우 만족해했다.” 이는 예수가정의 분위기와 가장의 모습을 설명한다.

36) 토마스 F. 오데아, 자네트 오데아 아비아드, 위의 책, 43.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인 농촌사회와는 달리, 농촌사회의 혼란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예수가정이 가정과 가장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귀속감을 부여해 준 것이며 동시에 사회적 가치관념을 뛰어넘는 힘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³⁷⁾

물론 이 가장제에도 문제점은 있다. 이후 공동체가 해체될 때 가정의 사적 유용을 공소(控訴)로 제기하면서 그 부정적 영향을 부각시켰다. 분명 가장제는 종교적 권위와 경제생활이 결합이 되어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 징을 비롯한 몇몇 소수의 가장이 구성된 전체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는 극단적 사도 시기의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때문에 예수가정은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서 종교적 이상에 기초해 조직제도를 만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운영방식은 민주적 요소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예수가정의 가장제를 통한 공동체 조직제도는 농촌사회에 적응하고 비정상적인 시기에 기독교의 이상사회를 실현하려는 모습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가정의 책임은 농민에게 익숙한 권위를 세울 뿐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며 공동체가 지향하고자 하는 천국 건설에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장제의 양면성은 농촌사회에 기독교 공동체가 고려할 부분이라고 본다.

둘째로, 예수가정의 오순절 신앙, 성령체험의 강조를 고찰하면, 다니엘 베이(Daniel Bays)는 이것이 예수가정의 설립자 징에게 격렬한 감정의 오순절주의를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의 평균주의를 실천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모델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했다.³⁸⁾ 징 개인의 종교

37) 曾强, “冲突与适应: 对农村宗教信仰的理论思考,” 『甘肃理论学刊』 第5期总第171期(2005年9月), 86.

38) Daniel H. Bays, “Christianity in China-A Case Study of Indigenous Christianity-the Jesus Family, 1927-1952,” *Religion, Journal of the KSR*, Vol. 26, No. 1 (Oct. 1988), 3. 赵建玲, (德)狄德满(R. G. Tiedemann), “基督教经典五旬节运动的全球本土化: 以中国为例,” 『宗教学研究』(2019年第3期), 227에서 재인용.

적 경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성령충만을 추구하는 기도와 울부짖는 기도, 방언과 입신 등을 강조하는 성령의 임재를 중시했다. 그럼 이런 오순절 신앙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을까? 당시 사회적 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22년 1차 직봉(直奉)전쟁의 발발,³⁹⁾ 1924년 2차 직봉전쟁 그리고 1926년까지 군벌 할거의 시대 등 전쟁과 분열로 빚어지는 사회적 위기와 자연재해 등 하층민의 삶에 가해지는 위협은 오순절 신앙이 대중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의 역할이 필요했고 오순절 신앙처럼 초자연적 역량에 대한 강렬한 추구는 큰 효과로 다가왔다. 이와 더불어 중국민간문화에 흐르고 있는 신비주의 경향이 이런 오순절 신앙을 수용하는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배경과 더불어 개신교 중국선교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개신교는 특히 기독교의 이성화를 강조하면서 신비주의와 성례, 성상 등을 축소시켰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19, 20세기 중국선교에서도 드러났는데, 해안을 따라 발달된 도시에서 교육과 의료 및 각종 사회복지 등을 활용해 도시의 지식인과 상층사회에 적응하는 선교였다. 선교사 대부분은 사회복지음을 강조하는 이성화된 사람으로서 신비주의와 비이성화를 특징으로 하는 농촌의 신앙형태와 잘 어울리지 못했다. 이에 중국선교 대상에서 농촌은 후순위였다. 다시 말해, 중국의 민간신앙은 압도적으로 무속화이며 어떤 종교적 수단을 통해 초자연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주로 샤먼적 성격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성화된 서양 기독교가 오랫동안 민간신앙에 의해 점유된 농촌에 뿌리내리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사회에

39) 직봉전쟁은 직계(直系)인 양사이(梁士詒) 내각의 친일과 친봉(親奉)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발발한 전쟁이다.

맞는 기독교의 등장에 오순절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다.

대만의 성령운동을 연구한 루빈스타인(Murray A. Rubinstein)은 오순절 성령운동이 전통 중국종교의 기본적 구조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⁴⁰⁾ 그 이유는 첫째, 성경주의적 경향으로 경전을 중시하는 중국인의 전통과 부합한 것이다. 둘째, 사탄이나 천사 등을 중시하는 신비적 경향은 민간종교에서 논하는 신명사상과 유사하다. 끝으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 방언과 신유를 추구하는 모습이 민간의 강신사상과 유사한 점에서 민간종교에 부합하는 오순절 신앙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 예수가정의 설립자 징이 어려서부터 잦은 잔병 치료와 도교에 대한 공부 등의 영향으로 민간신앙적 경향을 지녔으며, 성령운동을 강조하는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오순절 신앙을 공동체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성령체험에 대한 강조는 민간사회에 낯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중국전통, 민간사회에 팽배한 의식과 잘 부합하는 면을 지녔기에 환영받는 모습이 었다.

그리고 성령체험은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사를 받는 것으로, 그동안 중국사회에서 주변부로 여겨졌던 농촌사회의 농민이나 하층민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성령체험을 통한 평등주의 사상의 발로로 기존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권력구조에 반대하는, 즉 선교사나 목사 등 기존 교회의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다.⁴¹⁾ 예수가정의 가장제 또한 이런 성령운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분명 이점은 서양 기독교의 관리, 감독에 의해 세워진 권위가 아니라 누구나 성령의 감동에 의해 세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자립교회의

40) Murray A. Rubinstein, "Holy Spirit Taiwan: Pentecostal and Charismatic Christianity in the Republic of China," Daniel H Bays edit, *Christianity in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366.

41) 赵建玲, (德)狄德满(R. G. Tiedemann), "中国五旬节运动的起源与组织源流探究," 《世界宗教文化》(2017年第6期), 103.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당시 농촌사회에 일어난 주체적 의식과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가정은 성령체험을 통해 예배마다 성경읽기를 강조했으며 찬송가의 가사형식으로 성경구절을 읊조리며 생활화했다. 이는 종교개혁의 정신인 “성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수용해 성서를 사변적이거나 학술적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성서의 문자적이며 영적 해석을 중시하고자 했다. 이런 직접적이며 단순한 성서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비이성화 경향을 선호하는 농민들의 입에 맞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예수가정은 신도의 회개, 생활 속에서의 증언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르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성령체험은 종말신앙을 강조했다. 항전 전에는 추상적으로 하나님 영의 충만으로 묘사했지만, 항전 이후 전대미문의 고난을 말세의 징조라고 여겼다.⁴²⁾ 이런 사회적 위기로 불리는 고난 속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종교에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반응을 나타낸다. 말세에 방주 역할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수가정의 모습이다. 실제 항전 이후 예수가정의 폭발적인 발전은 이를 잘 증명한다고 본다. 특히 민간사회의 말세론은 당시 화북지방 농민들에게 미륵 말세신앙의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팔괘(八卦)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성현도(聖賢道)”에 설립자 징이 가입하기도 했다. 확실히 종말신앙은 고난 속에 있는 하층민에게 강한 흡입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성령의 감화로 종교적 헌신과 열정을 가져오는 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고난 속에 구원을 선포하며 당시 민간사회의 종교신앙과 결합하려는 길을 찾고자 했다.

이런 면에서 중국 오순절 운동의 특징을 연구한 티더만(R. G.

42) 설충수, 위의 논문, 131-2.

Tiedemann)의 언급은 참고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오순절 운동은 서양 오순절주의의 교의와 종교의례 등에 비취 유일신론과 성경무오설, 안식일 준수, 성령충만 추구, 방언과 신유 등 초자연적 종교체험을 수용했다. 둘째로 중국 전통문화와 민간종교의 몇몇 요소, 즉 중국적 말세론과 강신 등을 활용해 신앙적 실천에서 기독교적으로 개조하려고 했다. 이는 동서종교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민간기독교라는 형식을 통해 중하층민들의 친밀감과 인정을 얻어 기독교 중국화를 찾아 나가려는 민간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이를 통해 보면, 예수가정이 왜 농촌사회에서 형성되어 발전해 나갈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수가정의 오순절 신앙의 모습이 농촌사회와 문화에 유기적으로 결합해 가는 모습이라 본다.

끝으로 예수가정의 공산사회를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생활 공동체를 지향하는 예수가정은 함께 예배, 공동의 식사, 사유재산의 포기를 뜻하는 전 재산의 기부를 통한 입회 그리고 이에 따른 혈연중심의 세속 가정과의 단절과 새로운 가정의 실험 등을 실시한다. 철저한 균등주의 원칙에 의해 농업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과 학교, 병원, 유치원 그리고 예배당이 있는 이상적 생활 공동체를 지향했다. 물론 공동체가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공동 생산과 생활의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이상사회를 꿈꾸는 모습이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있음을 고찰하는 것은 농촌사회에 흡입력을 가져오는 예수가정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본다.

이에 주목할 것은 중국 전통 “대동”사상의 영향이다. 이는 『예기(禮記)』 “예운(禮運)” 편에 나오는 것으로,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평해져서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나아가게 되며, 신의가 존중되고 화목이

43) 赵建玲, (德)狄德满(R. G. Tiedemann), 위의 논문(2019), 227.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이를 이르러 대동이라 한다.”⁴⁴⁾ 여기서 말하는 대동사상은 고대 중국인이 현실사회의 부패와 착취, 압박을 제거하고 새로운 이상사회를 추구하고자 한 의도에서 제기되었다.⁴⁵⁾ 이 전통은 사회 진보와 광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상으로 작용했으며 또한 민간사회의 여러 종교들과도 결합해 말세론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5,4운동의 사상혁명을 통해 봉건질서를 무너뜨리고 새사회를 지향하려는 중국인에게 영향을 미쳤다.

예수가정은 대동사상을 통해 이상사회를 갈망하는 민간사회에 부합한 공동체이다.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귀한 자도 없고 천한 자도 없는” 평균주의적 생활방식을 주장했다. 특히 몇 천 년 동안 소농경제체제에 놓여있던 농민에게 이런 평균주의적 생활방식은 이상사회로 다가왔다. 차별이 없는 사회, 인종과 국가의 차이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형제의 사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공동체를 지향했다. 농민뿐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이 공동체에 참여해 초대교회의 모습, 천국을 만들어갔다. 이런 면에서 예수가정은 중국 전통의 대동사상에 기독교 보편주의 이상을 결합시킨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를 통해 사회를 개조해 나가고자 한 것이다. 이런 예수가정은 신도의 종교생활과 세속생활이 긴밀하게 결합된 생활공동체를 지향했다.

태산 고아원의 자급자족 실천과 종교와 세속생활의 결합된 모습을 모델로 삼아 농촌사회에 부합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잠상 학도방

44) 『예기(禮記)』“예운(禮運)”: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進賢與能, 講信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45) 陳正炎·林其鏞, 이성규 역,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中國大同思想研究)』(지식산업사, 1999), 130.

에서 예수가정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종교와 경제활동이 결합된 가정을 꾸꾸어 나갔다. 기독교적 가치관 특히 오순절 신앙의 특징을 강조하는 공동의 의식 공유와 이런 의식에서 가장제와 농촌문화적 요소를 활용해 찬송시 등 다양한 문화적 동일성을 추구하는 모습 그리고 마짱 등 각각의 지역적 거점을 중심으로 하며 전재산의 기부 등 자발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 신뢰관계를 본질로 추구하고자 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전쟁의 위협과 빈궁한 삶의 위기에서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 농촌 경제의 열악한 환경 등이 예수가정만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게 했다.

V. 나가는 말

예수가정은 1920, 1930년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생적인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기독교 공동체이다. 아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나칠 정도의 금욕주의나 인정과 거리가 먼 혼인방식과 집단기숙제도 그리고 민주적 요소를 결여한 조직제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다시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가 농촌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어떻게 농촌을 이해하며 자신의 색깔을 바꿔가 는지를 검토했다. 특히 그 가정관과 가장제의 운영, 오순절 운동의 영향 그리고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생활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비록 신 중국 성립 이후 공동체가 해체되었지만, 예수가정은 전쟁과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특히 민간사회를 대표하는 농촌에서 기독교의 사랑과 위로, 피난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농촌사회와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 공동체, 예수가정이라 할 수 있다.

현실사회에서 기독교 공산사회를 만들려는 예수가정은 당시 공산주의 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공산당은 단지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영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⁴⁶⁾고 할 정도로 예수가정은 사유재산의 포기,

균등한 공유제 등 당시 소련 공산당도 아직 실현하지 못한 이상적 경제체제를 단지 멀리받는 기독교인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갔다.⁴⁷⁾ 이 때문에 당시 공산당도 잠시나마 예수가정을 공산사회를 위한 구호로 삼기도 했다. 물론 이후 예수가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체되는 단계에 이르는 하지만, 예수가정이 걸어온 길은 분명 공산당이 추구한 기본적 이념노선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수가정의 모습은 당시 농촌교회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한 협진회에도 시사를 주었다. 해방 후 협진회는 3년분발운동을 통해 신도의 증가, 교회역량의 강화 그리고 교회협력사업의 재추진을 독려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과거 실패로 끝났던 “농촌실습지역” 즉 공동체의 재추진이었다. 특히 농촌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론을 부각시켰고 교회의 자립과 자양을 위해 신도의 기부를 주장했다. 농산품뿐 아니라 성전(聖田)의 기부를 통해 교회의 자립을 확립하며 공유된 재산을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동체를 구상한다.⁴⁸⁾ 당시 협진회 농촌부 간사를 맡고 있던 왕시평(汪錫鵬)은 예수가정을 방문한 후 그곳에 공산제도가 실현되고 있으며 농민을 철저히 이해하는 농촌교회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공동체라고 칭찬했다.⁴⁹⁾

예수가정 연구는 중국기독교의 비주류에 속하는 오순절 계통의 중국신도들이 농촌사회에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도시나 지식인 대상의 선교사 주도형 연구가 아니라 소전통(little tradition)으로 구분되는 농촌, 하층민 대상의 중국신도 또는 중국교회 중심의 연구라

46) 张天民的控诉, 马庄耶稣家庭控诉大会群众的控诉记录, 1952年8月, 泰安市泰山区档案馆, 1-16-9, 86. 陶飞亚, 위의 책(2012), 246에서 재인용함.

47) Vaughan Rees, *Jesus family in communist China*, 『중국의 예수가정』(도서출판 무실, 1993), 62.

48) 段琦, 위의 책(2004), 502-8.

49) 陶飞亚, 위의 책(2012), 256-7.

고 할 수 있다.⁵⁰⁾ 농촌의 특징인 가장제도 또는 민간종교의식 등을 기독교식으로 변용해 공동체의 활기를 불어넣는 요소로 활용했다. 비록 특수한 상황과 시기에서 농촌 생활공동체로서의 의의가 드러나지만, 예수가 정이 동아시아 문화 토양의 토대라 할 수 있는 농촌에 부합하는 모습은 충분한 고찰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오늘날 ‘커뮤니티 빌딩’(community building)이라 불리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운동, 즉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기독교에게 보다 더 농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고 본다. 동아시아인의 문화와 심성에 기반을 둔 기독교 공동체 건설을 기대해 본다.

50) 미국 인류학자 로버트 레드필드(Robert Redfield, 1897-1958)는 중국과 인도를 방문한 후 대전통(great tradition)과 소전통(little tradition)의 개념으로 동일사회의 서로 다른 문화층차를 구분했는데, 대전통은 도시문명 또는 엘리트문화를 가리키고, 소전통은 지방의 농촌문화 또는 일반사회의 민간문화를 의미한다.(Robert Redfield, *The Little Community and Peasant Society and Cul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41-42.)

참고문헌

- A. H. Smith, *The uplift of China*. Cincinnati: Jennings & Graham New York: Eaton & Mains, 1907.
- Murray A. Rubinstein, "Holy Spirit Taiwan: Pentecostal and Charismatic Christianity in the Republic of China," Daniel H Bays edit, *Christianity in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 Robert Redfield, *The Little Community and Peasant Society and Cul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예기(禮記)』
- 『敬奠瀛的自傳与耶穌家庭的情況』, 泰安市泰山區檔案館, 1-16-9.
- 中華續行委辦會調查特委會編. 『中華歸主』.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 中華全國基督教協進會編. 『基督教全國大會報告書』. 協和書局, 1923.
- 陶飛亞. 『邊緣的歷史-基督教与近代中國』. 上海古籍出版社, 2005.
- 陶飛亞. 『中國的基督教烏托邦研究：以民國時期耶穌家庭爲例』. 人民出版社, 2012.
- 陶飛亞, 劉天路. 『基督教會与近代山東社會』. 山東大學出版社, 1995.
- 段琦. 『奮進的歷程：中國基督教的本色化』. 商務印書館, 2004.
- 劉家峰. 『中國基督教鄉村建設運動研究(1907-1950)』. 天津人民出版社, 2008.
- 顧衛民. 『基督教与近代中國社會』. 上海人民出版社, 1998.
- 鄭新道. 『泰山孤貧院』, 泰安市文史資料委員會篇, 『泰安文史資料』第2輯, 1987.
- 趙建玲, (德)狄德滿(R. G. Tiedemann). "中國五旬節運動的起源与組織源流探究." 『世界宗教文化』(2017年第6期)
- 趙建玲, (德)狄德滿(R. G. Tiedemann). "基督教經典五旬節運動的全球本土化：以中國爲例." 『宗教學研究』(2019年第3期)
- 蔣鐵生. "變異·禁欲·共產-耶穌家庭再探析." 『史學集刊』(第3期, 2003年7月)
- 曾強. "冲突与適應：對農村宗教信仰的理論思考." 『甘肅理論學刊』第5期總第171期(2005年9月)
- 張春慧. "泰安耶穌家庭述論." 山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 Vaughan Rees. *Jesus family in communist China*, 『중국의 예수가정』. 도서출판 무실, 1993.
- 토마스 F. 오데아, 자네트 오데아 아비아드. 박원기 역. 『종교사회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성서연구사, 1992.
- 陳正炎林其鏞, 이성규 역.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中國大同思想研究)』. 지식산업사, 1999.
- 김현진. “중국의 예수가정(1).” 『목회와 신학』, 두란노, 1999. 11.
- 김현진. “예수님을 가장(家長)으로 모신 공동체(2).” 『목회와 신학』, 두란노, 1999. 12.
- 김형미. “공동체운동이란 무엇인가-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80, 새얼문화재단, 2013.09.
- 설충수. “중국 ‘예수가정’ 연구-그 역사와 신앙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제50집, 한국교회사학회, 2018.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09일

심사개시일: 2021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05일

• 국 문 초 록 •

기독교 공동체는 시대의 위기, 아노미 상태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종교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유토피아, 공동체를 형성했다. 공동의 생활공간에서 기독교 정신의 공동의식을 갖고 삶과 문화를 만들어갔다. “예수가정”은 이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으로 출발했다. 전쟁과 기근 등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농촌사회에 부합한 중국인에 의한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권위를 활용해 영적 “가장제”를 확립했으며 농민의 종교의식에 적합한 오순절 계통의 신학을 그 중심사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사유재산을 없애고 공산, 공유제도를 통해 자급자족의 “대동”을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예수가정의 농촌사회와 문화에 뿌리내리는 모습은 당시 협진회를 통해 추진하는 농촌선교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예수가정을 통해 오늘날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에 의미를 가져다준다고 본다.

주제어: 예수가정, 기독교 공동체, 농촌사회, 가장제, 중국오순절교파, 대동사회
